

연중 제 4 주일
구 라 주 일

기도서 339 면

제 1 독서 : 예레 1, 4-5, 17-19

제 2 독서 : 고린 전 12, 31-13, 13

복 음 : 루가 4, 21-30

순정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홍보국
인쇄관 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등록번호 0041·0042·0043

□ 강론

우리 죄를 보속하는 사람들



전 대 복 신 부

지난 여름에 동창신부 몇이서 전남 고흥군에 있는 국립 나병환자 진료소를 찾아 갔었다. 평소 우리지방에 있는 삼례 익산농장이나, 고창 동혜원, 김제 신암농장, 함열 상지원 등 음성환자 정착마을이 있어 그들을 대할 기회가 그리 어렵지 않았던 터이다.

그런데 이번 소류도 방문은 양성환자들과의 만남이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우리의 방문을 꺼려하면 어쩔까, 그들에게 한 조그마한 도움이나 위로의 말이 도리어 그들 스스로의 열등의식을 자극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그들의 잘라지고 이그러진 손을 덥서 잡아줄 수 있을까 등등. 그들을 만나는데는 마가렛과 마리아나의 도움이 컸다. 그들은 24살의 꽃다운 나이에 살기 좋은 독일을 떠나 한국에 와서 26년간이나 나병환자들과 생활을 같이 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며, 그들을 치료하고 있다.

마침 우리 방문 때가 국립의료원 개원 60주년이 되는 해로써 성대한 축제와 운동경기가 벌어지고 있었다. 우리가 본 경기는 배구 결승이었는데 개신교와 가톨릭의 결승이라 서로 열띤 응원으로 장관을 이루었다. 한참 동안이나 북이 터져라 응원하며 관전하던 중 필체에 애 없이 응원하는 열사들을 보았다. 양손이 절단된 채 양다리도 잘려져 있었으며 이그러진 얼굴이 빨갛게 충혈되어 금방이라도 빠질 것만 같은 모습이였다. 좀 섭섭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누가 자기를 보는 것조차 의식하지 않고 양손과 양다리가 없어도 몸통을 앞뒤 좌우로 흔들며 열심이 응원하는 것이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사람을 앞에 나타나기도 꺼려할 것이고 틀림없이 자기의 삶을 저주했으리라.

그러나 그는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물론 자기도 한때는 주님을 원망하고 이 세상을 그만 살고 싶은 생각도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보다는 하루하루가 새롭게 느껴지고 은혜롭게 생각된다. 이유인즉, "이그러져 불품없는 내 얼굴은 잘 생기고 잘 난 사람이 자기 얼굴로 짓는 온갖 죄악을, 내 손발없는 슬픔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 견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해 쓰라는 손발인데 도리어 못된 일과 죄악을 일삼는 자들이 짓는 죄를, 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고통중에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과 이웃의 좋은 점을 보기 위함인데, 아름다움과 좋은 것 보다는 시기와 질투와 음탕함의 눈초리로 짓는 죄를 내가 조금이라도 보속하기 위해 살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대신 보속하셨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조금이라도 대신 보속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생각할 때 불구가 된 것이 슬프거나 원망스럽게만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고 돌아왔다. 참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와 회생을 바치는 분들이 있음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저 불구된 나병환자들이 우리가 짓는 많은 죄악과 잘못을 대신 보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교산성당 주임신부)



함께 꾸는 작은 꿈들

어느 시골 본당에서 청년들의 피정이 있었다. 강의를 부탁받은 사람은 젊은이들의 모임이라 상당한 기대를 안고 산골 성당을 찾았다. 「몇 사람이나 왔을까, 아마 본당 사제의 권유에 이끌려 마지못해 참석했겠지」 하는 궁금합과 추측이 그 전부였다. 가보니 13명이 왔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 놀랍게도 자발적인 참여란다. 1박2일 코스지만 강의가 3시간에다가 산등성이를 넘어 공소를 찾은 목상의 길도 있어 꽤 알차게 느껴졌다.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는 진지함과 젊음을 발산하는 힘차고 즐거운 노래소리, 이 모두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래 전에는 어느 은행의 아가씨들이 나환자들을 돕겠다고 조그마한 모임 필리(百合)회를 조직했다. 이 모임은 그 뜻하는 바가 얼마나 고결한지 점차로 회원들이 불어났다. 한 달에 차 한 잔, 담배 한 갑을 줄여 어려운 처지에서 신음하는 나환자들을 도와 온 이 모임이 이제 는 결코 작은 모임이 아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껏 힘을 모으는 일에 하느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결과라 하겠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나 나환자의 힘으로는 너무나 어렵다. 하지만 하기는 해야 한다. 그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사람의 꿈으로만 끝나게 해서는 안된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불씨들을 모아 햇빛도 만들고 모닥불도 피워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사회에 필요한 빛을 보다 효율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새롭게 시작되는 중고등학생 지도자 모임에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도 구경꾼으로만 남아 있지 말자. "등불을 켜서 뒷박으로 덮어 두는 사람은 없다."(마태오 5.15)

순정이 산책



어려운 이웃들 도움시다

□ 구라주일 특집, 구라사업 소개

가톨릭 나사업 연합회의 주요활동

본 연합회는 나병 퇴치와 이미 치료된 음성 나환자의 자립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의료사업

- ① 나환자의 입원·상처·치료·수술(각종 대수술·성형 및 정형수술)
- ② 불구 나환자를 위한 의수족 제작과 이들의 수용 및 보호사업
- ③ 나환자 이동진료반 운영으로 신환(新患)의 발견 및 재가환자(在家患者) 치료

2. 교육사업

- ① 음성 나환자의 자립을 위한 정신교육 및 기술과 영농 교육
- ② 자녀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 ③ 신앙교육
- ④ 대중과 나환자에 대한 나병관리 계몽 실시

3. 자립 대책사업

양계·양돈 등 각 정착장의 지역 특성에 맞는 특수 사업을 육성·자립지원

4. 나환자 정착 마을과 나사업 단체들의 필요성

시설비 지원(공소 신·증축·성당 의자·환자 숙사 및 치료실 수리 등)

전주교구 내 나사업 단체들

1. 이리 성모의원(이리·동정성모회, 전화 이리 ③3783)

- ① 나환자 이동진료반 운영
6개군—정읍·고창·부안·김제·옥구·익산
2개지—이리·군산
9개 정착장 순회 진료
- ② 병상 20개의 나환자를 위한 입원시설 운영

2. 남촌 진료소(삼례·동정성모회, 전화 삼례 3880)

- 1982년 10월부터 익산 농원 내의 남촌 마을에 세 분의 수녀님이 파견되었음
- ① 유아교육 ② 보건교육(치료 및 상담)
- ③ 신앙교육(선교 및 생활지도)

3. 상지원(함열·성모영보회, 전화 함열 ③0882)

두 분의 수녀님들이 환자들의 상처 치료 및 전교를 담당 하고 계심

4. 동혜원(고창·예수의 작은 자매회, 전화 고창 3549)

두 분의 수녀님께서 환자들의 진료·신앙교육·생활지도 및 상담지도를 하시며 그들과 동고동락을 하심

5. 신암 농원(김제, 전화 용지 103)

신자 수는 100여명으로 공소가 있으며 주로 축산사업(양돈·양계·한우)으로 생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음



구라주일에

나병에 대한 건강한 이들의 물이해와 편견으로 말미암아 나환자들이 잃었던 인간의 존엄성을 도로 찾아주며 외롭고 딱한 처지에 있는 나환자 형제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정한 이웃이 되고자 한국주교단이 구라주일을 제정한지 벌써 열 여섯 해가 지났습니다. 한국교회는 프랑스 사람인 라울홀레르씨가 제창한 세계 나병의 날인 1월 마지막 주일을 구라주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밖의 흉한 모습만 보고 나환자를 꺼려하며 강제 격리수용을 바라는데 이 태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일 수도 없고 나병퇴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 원조단체나 외국인 독지가들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우리나라의 구라사업은 좋은 결실을 맺어 왔으나, 이제는 우리들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마르코 12, 31)하신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왔습니다.

가톨릭 나사업가 연합회에서는 의료사업이나 신앙교육 사업 외에도 복지사업 부문에서 나환자 마을에서나 나사업하는 분들로부터 많은 사업지원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연합회에서는 나환자들에게 힘이 되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신자들은 매년 구라주일에 한 번씩 헌금을 내어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적으로 나환자들을 돕고 있는 극소수인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삶에 의지를 상실한 채 병고와 가난 속에서 일생을 허덕여야 하는 나환자들을 돕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지불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라고 하는(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우리는 과연 이들을 위해 얼마나 바쳐야 할까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의 가장 귀한 몫까지라도 내어 줄 수 있는 관대한 사랑의 나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남아 돌아가는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 그들에게 할애할 여지를 남겨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사회의 저변에서 무시되고 가혹한 궁핍을 감수하고 있는 집단(集團)이 바로 나환자들임을(우리 이웃) 신자 여러분들의 양심에 호소하며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 도움의 대열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리 성모의원 유 빈첸시오 수녀)

- 혼수(회갑) 옷감
- 특수 파티복
- 고급 침구류
- 각종 솜 일체
- 커튼지

서울 주 단

☎ ③0453 ③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집(안토니오)
박(베로니카)

- 마춤·대머
- 웨딩드레스·약혼복·연주복·부케·신부화장·비디오 촬영

신 부 의 집

동서관통로 서울신탁은행 앞
전화 ⑥ 6951
정 인 기(논지도)

푸 른 사 장

이 준 영(모이세)
전화 2-3840

구 성모병원(시내버스 승강장) 앞

정 약 국

약사: 정 석현(마르코)
전화 2-9615

☐ 성모병원

팔 달 로

☐ 정동성당

■ 정약국
푸른사장



□ 전주교구 200주년 특집 예고

우리는 1984년에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기념하게 된다. 2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2백 년의 햇수를 기념하자는 말이 아니다. 20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자랑스러운 우리 초대교회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우리 신앙의 지표로 삼아 오늘날에 그 정신을 구현하고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의 새신을 이룩해 보자는 것이다.

1983년을 맞으면서 200주년 기념 준비는 전국적으로 열을 올리고 있다. 순정이 편집실에서는 여기에 발맞추어 「전주교구 200주년 특집」을 연재할 계획이다. 모든 분들이 함께 해야 하는 200주년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이 특집이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특별히 교구사를 전담하여 연구하고 제신 김 진소 신부님께서 수고하여 주실 계획이다.

□ 성서 세미나

성서의 말씀은 신자생활의 규범이요, 힘의 원천이다. 금번 교육국에서는 가톨릭 신자들의 성서에 관한 관심에 부응하여 성서 입문에 관한 세미나를 주최하기로 하였다.

이 세미나는 성서를 처음 대하시는 분들에게 바른 지침이 제시될 것이며, 이미 성서를 즐겨 읽고 삶의 귀감으로 삼으시는 분들에게도 성서의 사상과 배경을 깊이있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강사: 범 선배 신부(대전 신학대학 교수), 주제: 신약성서의 사상과 배경

일시: 2월 8일 오후 2시~9일 오후 5시, 장소: 가톨릭 센타, 대상: 대학생 및 일반

준비물: 참가비 6,000원, 성서, 성가집, 필기도구, 세면도구

□ 창인동·복자·부안에 꾸리아 설립

창인동 '치명자의 모후' 꾸리아는 총 26개 브레시디움으로 8개팀을 분리 '은총의 모친' 꾸리아를 설립하여 초대 단장에 김 학현(바오르)씨를 선출하였고, 복자성당은 그동안 꼬미씨움 직속에서 분리 '치명자의 모후' 꾸리아를 창립하여 초대단장에 조 성호(야고보)씨를 선출하였으며, 부안성당은 꼬미씨움 직속에서 분리하여 '사랑의 모친' 꾸리아를 설립 초대단장에 신 석만(그레고리오)씨를 선출하였다.

지난 1월 23일 화산(나바위) 성당에서는 꼬미씨움 주관으로 국민학생과 공소신자 포함 전신자 300여명에게 레지오 교육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하고 파견미사 겸 주일 공식미사를 오후 5시에 거행하였다. 또한 지난 1월 22일 꼬미씨움에서는 익산 상지원 공소를 방문 레지오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지난해에도 꼬미씨움에서는 고산성당 전신자 300여명에 대한 레지오 교육을 끝으로 15개 본당을 순회 2,5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83년도에도 본당과 공소에서 요청시 꼬미씨움 주관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요심이 (495) 김병오



□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국내 최초로 시설

밝고 보호하는 시원하게

보안당 센타

구역전 오거리 전화 33032 윤(베드로) 종선

한국 천주교회의사의 어둠을 밝혀준 力作

최 석우 신부 지음

한국 천주교회의의 역사: 신국판 428면 8,000원
천주교 수용에서부터 북한 천주교회의의 수난까지
한국 교회사의 탐구: 신국판 561면 8,000원
한국 교회사의 각 분야별 논문
한국 교회사 논총: 신국판 751면 15,000원
한국 사회 속의 천주교회, 각 분야별 학제인사 24편수록
한국교회사 연구소/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04호
연구소 322-4409 편찬실 724-4124

남자 수도자 성소 상담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형제들의 상담을 기다립니다.
—마리아회 수도원은 교육자업을 통하여 사도직을 수행합니다.
121. 서울시 마포구 망월동 403-2 마리아회 (마리아니스트) 수도원

L.P.G 판매, 시설

한국 가스 상사

신속배달, 무료점검
☎ 1457, 5928
주 이 안젤라

[SS] FASHION 전주 특약점

	머킹검		워크엔드
	로가디스 소사이머티		간이복
	런던포그		피노키오
	세계적인코트의명문		아동복
	첼린저		전주시 중앙동 3가
	주니어복		삼화약국 옆 @4451
			주인 유 울리안나

□ 관광 안내

주식회사 **한길관광여행사**
군산시 중앙로 1가 시청 사거리
전화 0339 1147
우주 161, 547
대표이사 박노석(요한)
상임감사 문재원(겔라시오)
제주·설악 대한항공 대리점

해외여행 업무개시
국제여행사 개설

전 일 관광

전화 6666~8
대한항공 국내외 대리점
결혼대절, 제주도, 신혼여행 안내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
지
사
할

※ 오늘은 구라주일입니다. 고통중에 있는 형제에게 따뜻한 마음을...

1. 제14차 여성 꾸르실로: 2월 3일 오후 5시~6일 오후 7시
2. 83년 신앙강좌 개강(예비자): 3일 오후 7시30분, 당일도 접수함, 장소-가톨릭 센터 3층
3. 프란체스코 청장년 재속 형제회: 매월 첫 화요일 저녁 7시, 장소-중앙성당(관심있는 모든 분들 참석)
4. 공동체 묵상회(기초 코스): 신착순 40명, 2월 22일~25일, 접수-교육국, M. B. W 추진회
5. 남성 제17차 꾸르실로: 2월 26일~3월 1일, 수강료-2만원, 신청 마감일-2월 16일, 접수-교육국

(중앙)

전화 01711~3

주임 신부	문정희
수석 보좌	한기호
보좌 신부	박인협
사도 회장	김인협

1. 보좌신부님 이, 취임식: 박인호 신부님께서 이리 창인동으로 떠나시고 안철문 신부님께서 오십니다.
 2. 재의 수요일: 16일, 성지까지 2월 13일까지 사무실에
 3. 구정합동 위령미사: 2월 13일엔 구정, 공식미사와 저녁미사는 합동 위령미사
 4. 개학미사: 2월 7일 저녁미사, 학생들 많이 참석바람
 5. 타 지역에 사시다가 중앙성당 구역으로 이사오신 아레 명단에 있는 분은 사무실에 연락하세요
정봉자, 김창식, 민경애, 박복남, 진영환, 강진구, 허세욱, 한건수, 이복순, 송국용, 박영식, 허창열, 이창호, 최용국, 박옥남, 김윤덕, 지금석, 박부주
 6. 성전 신축현금 신입해 주신 분: 차경순·박정자·정인기·소희영·김분도·윤종이(각 5만), 송대영·박근자·이석례·전종근(각 10만), 김병례(30만), 이만래·장대섭·김경녀(각 1만), 신정철(50만), 김영만·고정례(각 3만), 정철영(100만), 어머니 피정현금 및 경비 잔액(84,800원) 누계-115,927,600원
- 지난주 봉헌금: 902,452원 교무금: 1,020,681원

- 형제·친척) 은인들을 위해 정성껏 드립시다
4. 초 축성: 2월 2일(주의 봉헌축일) 초 두자루를 준비하여 가정에 한자루 제대에 한자루 봉헌함시다
 5. 지성인 교리: 센터에서, 2월 3일 저녁 7시30분
 6. 금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김성원 ②김인식
- 차전전례: 해설-김재식, 독서-①조성호 ②정운주
- 지난주 봉헌금: 600,840원

(서화동)

전화 02276번

주임 신부	김명훈
사도 회장	황인규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매월 첫째주일 10시 공식미사전(9시30분)
 3. 예비자 교리시간: 성인-매주 공식미사 후, 학생-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
 4. 자도회 모임: 2월 1일 오전 10시30분 성당 회의실
 5. 주의 봉헌축일: 2월 2일 저녁 6시30분 초봉헌 있음
 6. 은인 구할: 미사주, 제대 꽃대 사무실에 신청 바람
 7. 여성 꾸르실로 교육: 제14차 2월 3일~6일
서준옥·이복남등 참석, 많은 기도 바랍니다
 8.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박정춘 ②김나섭
- 지난주 봉헌금: 257,870원 교무금: 92,200원

(노송동)

전화 0969

주임 신부	김용태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이홍재

1. 박신부님의 송별미사: 오늘 공식미사 중에
 2. 축! 환영: 나운성(스태파노) 새신부님께서 우리 본당 보좌신부님으로 부임하십니다
 3. 세미나 개최: 2월 7일~11일까지(오후 7시~10시)
 4. 사도회 상임위원회: 오늘 공식미사 후
 5. 축성예식: 2일 주의 봉헌축일에
 6. 구라주일 특별현금: 오늘 각 미사 후에
 7. 구정합동 미사: 신영들을 위해 미사예물을 봉헌바람
 8. 차주 전례담당
새벽미사: 해설-은경순, 독서-①서용문 ②문정수
공식미사: 해설-박은경, 독서-①박준용 ②최명자
저녁미사: 해설-이종판, 독서-①박환우 ②강미숙
기도담당-박준근·양광식, 제물봉헌-이수만씨부부
- 지난주 봉헌금: 본당-347,590원, 아파트-43,450원
교무금: 본당-252,500원, 아파트-44,000원

(순정이)

전화 0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09567	사도 회장 김수길

1. 사도회 월례회: 금주 토요일 19:00
 2. 요한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3. 꾸리아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초 축성예식: 주의 봉헌축일(2월 2일) 초를 봉헌하실분 사무실에 접수
 5. 평신도 강론: 이상용 이강노
 6. 성령기도회: 매주 금요일 19:30
 7. 군중후원회: 희비 날부 바람
 8. 금전전례: 해설-홍성조, 독서-①송홍호 ②백시현
기도-김경주·김정분
- 차주전례: 해설-김경주, 독서-①선종현 ②이철수
기도-김정모·홍성조
- 지난주 봉헌금: 156,460원 교무금: 546,110원

(전동)

전화 신부 06208

주임 신부	김병준
수녀 08347	보좌 신부 박병준
	사도 회장 이종두

1. 글라라 형제회: 오후 1시, 불우이웃돕기(현금·백미)
 2. 성가정회: 2월 1일 오후 2시
 3. 사도회·자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유아세례: 9시 미사후
 5. 신학생 후원회 가입: 회원 1인당 1천원
 6. 83년 교무수 신입해 주세요-사무실
 7.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종규, 독서-①김동연 ②이주영
공식미사: 해설-이준영, 독서-①안득수 ②이영희
저녁미사: 해설-김윤주, 독서-①경양수 ②이영철
- 지난주 봉헌금: 566,305원 교무금: 457,500원

(덕진)

전화 02182번

주임 신부	김봉희
보좌 신부	안철문
사도 회장	양상열

1. 사도회 위원 피정: 오늘 오후 3시~8시
참가대상-각 분과위원·교문·감사·공소 대표 2명
지침물-공동체성가집·묵주·분과소판 업무표
 2. 보좌신부님 이취임: 3일 오후 3시
 3. 부녀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사제관 2층
 4. 수고에 감사: 주일학교 교사님들 공소 동계특별교리
 5. 지성인 교리강좌(선교분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사제관 2층
 6. 미술학교 어린이용 도서 수집(교우분과): 협조 바람
 7. 미사전 성가연습(전례분과): 미사 30분전 성가연습
성서, 성가집 꼭 지참함시다
 8. 봉헌금 모두 정성껏 신입함시다(재경분과)
(성전 신축현금+교무금=83년도 교무금)
- 지난주 봉헌금: 468,495원 교무금: 246,000원

(파티마)

전화 신부 09915

주임 신부	김영일
수녀 04804	사도 회장 황희상

1. 유아세례: 오늘 3시30분 어린이미사 후
 2. 대학생 및 예비신자 대학생 금년에 입학 예정자까지 포함: 오후 4시30분(금일) 다시 한번 모여봅시다
 3. 초 축성: 2월 2일 아침 6시미사, 축성하실 분은 전일까지 성당에 가져오십시오
 4.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5. 꾸리아: 다음주(연총친목회 관계 간부님 참석 요망)
 6. 애령회 간부들: 오늘밤 미사후 있습니다
 7. 성가연습: 주일미사 10분전에 오셔서 착실히 함시다
- 지난주 봉헌금: 213,385원 교무금: 396,000원

(복자)

전화 05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오늘 저녁미사 후
2. 첫 철레 6: 2월 4일, 첫철레 7-2월 5일 저녁 7시
3. 구정합동 위령미사: 2월 13일(먼저 가산 선영, 부모